

# ★백승호국제법 강의계획표

(2018년 국립외교원/5급공채 대비 예비순환)

강의 일정	2017년 5월 2일(화) - 6월 14일(수) (총 37회)
수업시간	<p>I. 18:40 - 20:10 (90분)</p> <p>II. 20:40 - 22:10 (90분)</p>
수업교재	<p>국제법론(제19판, 김대순著) + 국제경제법론(I)(백승호著, 제공)</p> <p>+ 기출분석노트(제공) + 체계정리노트(제공)</p> <p>+ 컬러조문(2017년 전면개정판, 수업진도에 따라 제공)</p>
강의 특징	<p>1. 강의는 국제법일반 31회 국제경제법 6회로 나누어 총 37회로 진행됩니다. 우선 <b>국제법론(김대순著, 제19판)</b>과 <b>국제경제법론(I)(백승호著, 2017년판)</b>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b>주요체계</b>를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 관련 논점들을 실전에서 답안지에 명확하게 적시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b>칼날 같은 기본서 문장들</b>을 익혀가는 시간들을 확보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b>질의응답시간</b>과 <b>기본서문장복습시간</b>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강의활용방법은 수업시간에 공지합니다.</p> <p>2. 예비순환에서는 조문체계정리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므로 한조문 한조문 직접 타이핑하고 필수적인 법적 코멘트와 판례의 정확한 법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조문집을 컬러로 프린트해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전면개정을 단행한 컬러조문은 (기출분석노트 및 체계정리노트와 함께) 제 眞心이 담긴 자료로 파리대학 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없는 소중한 자료입니다.</p> <p>3. 후회하지 말고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가지고 국제법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세요.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국제법에 대한 熱情과 想像力으로 보답하겠습니다.</p>

# 2018년 국립외교원/5급공채 대비 백승호국제법 예비순환 강의진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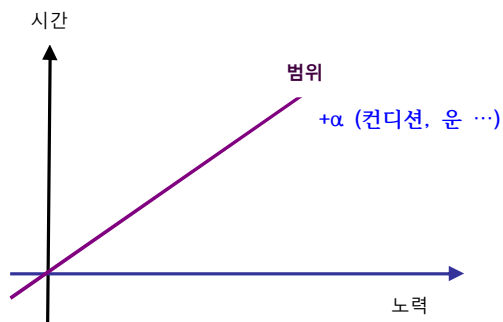
(01) 5월 02일	<b>**국제법의 역사</b>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9) 24일	제20장 국가승계
(02) 03일	제2장 국제법의 연원	(20) 25일	제21장 해양법 (Ⅰ)
(03) 04일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21) 26일	제21장 해양법 (Ⅱ)
(04) 05일	제4장 조약법 (Ⅰ)	(22) 27일	제21장 해양법 (Ⅲ)
(05) 06일	제4장 조약법 (Ⅱ)	(**) 28일	
(**) 07일		(23) 29일	제22장 영공법 제23장 국제우주법
(06) 08일	제4장 조약법 (Ⅲ)	(24) 30일	제24장 국제환경법 (Ⅰ)
(07) 09일	<b>**국제법의 법적 구조</b>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제6장 국제법의 주체	(25) 31일	제24장 국제환경법 (Ⅱ)
(08) 10일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26) 6월 01일	제25장 UN
(09) 11일	제9장 국가관할권	(27) 02일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09) 12일	제10장 국가면제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8) 03일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Ⅰ)
(10) 13일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 04일	
(**) 14일		(29) 05일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Ⅱ)
(11) 15일	제13장 기타면제 및 특권	(30) 06일	제28장 전쟁법
(12) 16일	제14장 국가책임 (Ⅰ)	(31) 07일	제29장 국제형사법원(ICC)
(13) 17일	제14장 국가책임 (Ⅱ)	(32) 08일	제1주제 GATT의 원칙과 예외 (Ⅰ)
(14) 18일	제14장 국가책임 (Ⅲ)	(33) 09일	제1주제 GATT의 원칙과 예외 (Ⅱ)
(15) 19일	제15장 국적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4) 10일	제1주제 GATT의 원칙과 예외 (Ⅲ)
(16) 20일	제17장 국제인권법	(**) 11일	
(**) 21일		(35) 12일	제1주제 GATT의 원칙과 예외 (Ⅳ)
(17) 22일	제18장 국제난민법	(36) 13일	제1주제 GATT의 원칙과 예외 (Ⅴ)
(18) 23일	제19장 영토의 취득	(37) 14일	제1주제 GATT의 원칙과 예외 (Ⅵ)

# 2018년 국립외교원/5급공채 대비 백승호국제법 수험방법론

## I. 수험준비를 시작하며

### 1. 준비하는 시험의 특성 이해

- 가. 국립외교원/5급공채 행정고시
- 나.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
- 다. 석·박사과정인 아닌 수험공부?
- 라. 합격과 불합격 (성공? or 실패?)
- 마. 고시는 4차원 확률게임



### 2. 교재의 선택

- 가. 주교재와 부교재
  - 기본서? or 요약서? / 두꺼운 책? or 얇은 책?
- 나. 어떤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가?
  - 교과서/조문/판례/논문/기타 자료

### 3. 교재내용의 습득

- 가. 주교재의 내용학습
- 나. 부교재의 활용방법
- 다. 시사적인 문제는 어떻게?
- 라. 국제법으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하자!

### 4. 공부시간의 효율적 배분

- 가. 기출문제를 활용한 배분계획(★)
- 나. 효율적 시간 배분
  - 과목과 과목의 시간배분/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시간배분/조약법과 해양법의 시간배분
- 다. 전략과목과 취약과목

### 5. 전략적 수험 계획

- 가. 자신의 인생스타일과 현재위치의 정확한 파악(★)
- 나. 강의일정확인과 자신의 가용자원 확인
  - 순환강의 ▶답안지스터디
- 다. 자신만의 수험스타일 정립/스터디의 활용?
- 라. 공부는 결국 습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
- 마. 공부할 때는 자신을 믿지 말고, 시험장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믿을 것
- 바. 동료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
- 사. 포기? or 실패? 그리고 매몰비용?
- 아. 슬럼프의 극복?/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의 확인
  - 행복하게 시작하고 행복하게 공부보고 행복하게 시험보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것
  - /천천히 가도, 더 사랑해도, 더 행복해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 II. 답안작성론

### 1. 출제자의 의도파악(★)

- 가. 출제유형과 배분점수의 중요성
- 나. 기출문제 활용: 기출문제의 가치를 제로(0)로 수렴시키지 말 것
- 다. 기출문제 분석: 내용? 유형? 사례형? 논술형? 핵심은 출제자의 의도
- 라. 왜 이 주제를 왜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까?  
A를 물었을 경우?, B국의 입장을 물었을 경우?
- 마. 출제자 강평 ▶내용강평/답안첨삭 ▶내용첨삭?, 구성첨삭?
- 바. 시작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최종정리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 2. 답안 구성

- 가. 답안지 구조 파악
- 나. 답안구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목차의 중요성/문단형 서술
- 다. 내용전개: 간결한 서술? 키워드중심 서술!
- 라. 답안내용: 정확한 서술? 비교적 서술! 조문·판례의 활용! 풍부한 서술? 예시적 서술! 사례의 활용!
- 마. 매력적인 답안, 합격하는 답안(★)

### 3. 답안작성 Tip

- 가. 글씨연습? 글씨는 최대한 읽기 편하게!
- 나. 120분(20분/100분) 90분/(15분/75분)
- 다. 제1문과 제2문 그리고 제3문
- 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답할 것인가?
- 마. 답안의 형식? 목차구성? 핵심은 콘텐츠!

### Ⅲ. 수업진행방식의 이해

#### 1. 강의 계획표

가. 계획표대로? 보강은?

나. 수업시간표의 활용(복습기준표?)

#### 2. 기본서 특성의 이해

가. 김대순저 국제법론의 특성

나. 백승호저 국제경제법론의 특성

#### 3. 기본체계위주의 수업방식

가. 무엇을 모르는가?

나. 문제의식은 공유하되 답하는 논리는 각자 찾을 것

다. 중복되는 주제는 각도를 달리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정리할 것

#### 4. 수업의 연습과 복습, 이해와 암기

가. 연습? 복습?

나. 이해? 암기? 이해만? 암기만?

#### 5. 질문과 해결

가. 질문의 유형1, 유형2, 유형3

나. 질문은 글로 표현해 보는 습관, 그리고 답도 신중히

다. 열린 자세로 찾아낸 답에 대해 겸손함을 유지할 것: 말할 수 있는 입?/들을 수 있는 귀!

라. 공부란 작업은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 그래서 외롭지만 겸손해지는 결국 그래서 행복해지는 과정!

## IV. 국제법 공부방법론

### 1. 서론: 국제법도 법이다.

국제법은 국가들을 그 1차적 수범자로 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사실(정치)이 아닌 규범(법)으로 국제법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이다. 매우 단순하고도 자명한 명제처럼 느껴지나 과거 유명한 법학자들이 “국제법은 법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견해를 달리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명제는 매우 구조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수많은 논의를 거쳐 현재 국제법은 사실(정치)이 아닌 규범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규범으로 국제법을 만나는 여러분은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2. 조약과 관습 그리고 판례

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은 그 주체들에게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제공한다. 이에 국제법의 어느 분야에서건 우선 전반적으로 조약문에 친숙한 학습방법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규칙이 관습법화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또한 빠트려서는 안 된다. 규범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법 교과서들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국제법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다가온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국제법을 공부하고 싶다면, 먼저 국제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교과서를 읽어 나가는 도전적인 공부방법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만나야 그 개념을 재미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추상적인 규범을 만날 때면 언제나 먼저 그것이 규율하고자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러한 생각의 과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추상적인 규범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규범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된 판례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3.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국제법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수험준비에 앞서 우선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험생 대부분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제대로 자신의 수험공부에 활용하는 수험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수험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기출문제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앞서 기출문제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 과정 없이 기출문제의 답만 그것도 타인에 의해 제시된 목차에 따라 공부할 경우 그 귀한 기출문제들의 가치는 빛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기출문제가 무엇을 묻고자 한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수험과목으로서의 국제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4. 체계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암기량

체계적인 이해 후에 요구되는 일정량의 암기는 필수적이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명심하여 둘 것은 수험 준비 기간 내내 여러분은 암기량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국제법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과목이든 합격에 필요한 방대한 지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암기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기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암기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공부량을 대폭적으로 늘이면 된다. 암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개념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방대한 양의 공부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5. 답안작성연습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기출문제를 통해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고 체계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암기량을 설정하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답안이 매력적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연습은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우선 기출문제로 답안작성 훈련의 기본기를 다진 후 양질의 실전연습문제로 실전처럼 답안작성 연습을 해야 한다. **Input과 Output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죽어있는 경제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학적 사고’를 하기 바란다. 여러분의 능력 중 가장 빠른 것은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이 여러분의 **Identity**이다.

#### 6. 깔끔한 정리: 보충자료의 적절한 활용

이 때 유의할 점은 공부량을 확 늘였다고 자동적으로 암기량이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방대한 공부량 속에서의 국제법 공부는 다시 적당량의 암기량을 담고 있는 깔끔한 정리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 종 보충 자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고 적당량의 암기량을 담고 있는 깔끔한 정리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 없이 간단한 암기사항만을 나열하고 있는 요약자료만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님은 당연하다. 어느 과목이 되었든지 간에 처음부터 요약자료나 보충자료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이 결국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이다.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으면 교과서를 더 도전적으로 열심히 읽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교과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요약자료나 보충자료에 의존하려는 습관성을 보이곤 한다. 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처음부터 요약자료나 보충자료에 의존할 경우 이 모든 요약자료나 보충자료가 줄 수 있는 각 종 편리함을 넘어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된다. 이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 요약자료나 보충자료를 만든 사람의 논리력 그 이상을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게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요약자료나 보충자료가 교과서의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 그러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여러 논리들을 짜깁기하여 만들어진 자료로 교과서의 전체적 논리적 흐름을 거세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각 종 보충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학습전략은 합격에 있어 필수사항이 된다.

## 7. 글을 맺으며

국제법의 구체적 공부방법과 관련하여 국제법을 학문이 아닌 수험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유의해야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널판의 가장 얇은 부분만을 골라 뚫는 자세를 버리고 공부의 기본을 잃지 말기를 부탁한다.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본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국제법 실력의 城을 탄탄하게 쌓아둔 후, 정선된 양질의 문제를 통해 이러한 자신의 국제법 체계를 수시로 점검해두는 공부방법이 결국은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공부방법임을 명심하고 이제 국제법 공부를 시작해 보자. 늘 그러한 것처럼, 국제법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보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V. 2017년 또 한 번, 다시, 2018년 시험을 위해 예비순환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백승호입니다. 2017년 5월 2일 현재 '외교관'을 또는 '국제통상사무관'을 꿈꾸는 여러분과 다음 2개의 시를 나누며 2018년 대비 예비순환을 시작하려 합니다. 전 2017년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항상 그래왔듯이,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기대'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새해 첫 기적  
반철환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  
정세훈